

광주 지동저수지서 수상훈련 장교 2명 물에 빠져 의식불명

군부대 절차·규정 준수 여부 논란...안전불감증 人災 지적

장교 2명이 광주의 한 군부대 훈련장에서 수상훈련 중 물에 빠져 의식불명이 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수상훈련을 받던 초급 간부 2명이 수상 사고를 당했다는 점에서 안전불감증이 빛 어낸 인재(人災)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8일 오후 3시33분경 광주시 광산구 도덕동 상무대 동백훈련장 지동제(저수지)에서 장교 2명이 물에 빠져 실종됐다.

이들은 사고가 난지 1시간여 만에 잇따라 구조된 뒤 합평국군통합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불명 상태다.

이들은 당시 지동제에서 로프를 이용해 물을 건너는 수상훈련을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상 훈련을 받던 장교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점에서 군부대 측이 수상 훈련 임무의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군부대 측이 수상 훈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이들에게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게 한 뒤 훈련에 임하게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혹이 일고 있다.

군부대의 안전인 사고 수습 능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군부대 측은 사고 직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관행적인 비밀주의로 사고를 덮으려 하는 등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군부대 측은 이날 오후 4시까지 사고 상황을 접수 받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같은 시각 사고 현장에서 군부대 간부들이 실종자 수색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이 사고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 일부러 감추려한 것 아니냐는 것이 다.

군부대 측은 아직까지 사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사고의 원인규명과 별개로 군의 작전·보고·행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검열과 함께 사고 수습에 대한 대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충행기자golee@kwangju.co.kr



28일 광주시 광산구 도덕동 상무대 동백훈련장 지동제 저수지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수상훈련 중 물에 빠져 실종된 군인 2명을 발견, 이송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수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 안돼”

영광 어민·환경단체 오늘 반대 집회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가동을 위한 과도한 바닷물 사용 요구에 대한 지역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수원이 감사원 심사 청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2042년까지 무려 27년간 원전 가동에 필요한 바닷물 사용 허가를 요구하면서 어민과 환경단체가 29일 영광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허가 반대를 요구하는 등 반발할 태세다.

주민들은 특히 한수원이 또다시 장기간 해수사용 허가 신청을 해온 것은 설계수명

만료가 10년 앞으로 다가온 ‘한빛 1호기의 수명 연장’을 염두에 둔 고도의 노림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8일 영광 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책위원회 및 영광지역 어민 등 500여명이 29일 영광군청 앞에서 ‘한수원의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신청’ 반대 집회를 연다. 한수원측이 오는 2042년까지 연간 115억t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영광군청에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주민들은 영광군이 한수원의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특히 한수원 측이 원전 6기 가동에 필요한 바닷물의 양인 115억t을 27년간 신청한 것과 관련, ‘원전 수명 연장을 위한 필수’라는 의식의 논조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빛원전의 경우 오는 2025년 한빛 1호기부터 설계수명이 순차 만료됨에 따라 사용하게 될 바닷물의 양도 줄어든다. 하지만 한수원 측은 이를 감안하지 않고 허가 신청서를 냈다. 이대로라면 한빛 6호기 수명이 만료될 때까지 원전 6기를 가동할 수 있는 바닷물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김형호기자 khh@영광=이종윤기자 jylee@

“선장 역할 포기...용서받지 못할 행위”

세월호 항소심 판결 현장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서받기 어렵고 우리 사회에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8일 열린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재판부의 단호한 법률적 판단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2심의 최대 쟁점이었던 선장의 퇴선 명령 여부를 비롯, 살인죄 부분은 1심 판결과 다른 차이를 드러냈다. 상당수 선원들의 형량 감형은 유·무죄 판단과 징역 10년 이상 선고된 경우에만 심리하는 상고심을 감안한 조치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선장, 살인의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 인정=항소심 재판부는 선내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에 따라 대기하던 400여명의 승객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먼저 탈출했고 이후에도 승객 구조는 커녕, 해경정 선실로 들어가는가 하면, 사고 현장을 떠나 진도 병원에서 신원이 밝혀질 때까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선장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부작위’ 살인은 어떤 것을 하지 않았음으로써 살해 결과를 낳은 것을 의미하는데, 구조조치 포기, 승객 방치 및 먼저 퇴선 등은 살인의 실행행위(작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 해석이다.

재판부는 이 선장의 무책임한 행태를 ‘고층 빌딩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장

살인죄 법률적 판단 단호 선원들 형량은 대폭 낮춰 조타 과정 과실 판단 유보 선제 인양 뒤 정밀조사 의견

이 빌딩 안 승객 구조를 외면한 채 옥상 구조 헬기를 타고 먼저 빠져나오는 행위, ‘야간 유일한 응급실 당직의사가 위독한 환자를 방치하고 병원에서 빠져나오는 행위’에 빗대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을 사회와 영구히 격리시키는 등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대신, 지휘 감독을 받는 선원에 대해서는 형량을 대폭 낮췄다. 그만큼 리더로서의 선장에 대한 권한 및 지위의 중요성을 반영한 판결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선장은 승객 등의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법률상·사실상 유일한 권한을 가진 지위에 있고 누구도 대신 이행할 수 없는 데도, 이 선장은 구조조치, 세월호 승선 경위, 건강상태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법 감정을 의식한 듯, 선원들에게 적용되는 ‘양형기준’과 ‘권고형량’을 벗어난, ‘무거운’ 형량을 선택한 배경을 판결문에 자세히 설명했다. 또 이탈리아 콜코르디아 좌초 사고와 관련, 승객보다 먼저 탈출한 선장에 대해 징역 16년 1월을 선고한 사례도 덧붙여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정을 찾은 유가족은 “다 풀 어줘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살인죄 당연...선원들 감형은 승복 못해”

유족·시민단체 반응

“끝나지 않을 싸움이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시민단체는 항소심에서 이준석 선장에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자 즉각 “살인죄 인정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나머지 선원에 대해 1심 무죄가 그대로 선고되거나 감형된 것에 대해서는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28일 오전, 4·16가족협의회에 소속된 세월호 희생자 가족 30명은 선고 공판이 끝나자마자 광주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장에 대한 살인죄 인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다른 선원에 대해 1심에 비해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원고 소년 아버지 김진철(56)씨는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았다”며 허탈한 심정을 나타냈다. 그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재판

결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가족들은 바로 대법원 상고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에 함께하며 유가족을 위로했다. 광주 기독교 연합회(NCC) 회장 장현권(57) 목사는 “선장에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나머지 선원도 1심에 비해 감형된 것은 304명 희생을 감안하면 어이가 없는 판결”이라며 “선제 인양을 통해 정확한 증거를 분석하지 못한 재판 결과라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세월호참사광주시민대책위는 4·16가족협의회에 의해 따라 대법원 상고까지 도우며 힘을 보탤 것을 다짐했다. 광주시 민상추모인 회원 30명은 이날 공판이 열리기 전부터 광주고법 앞에 줄을 지어 영원의 문구가 실린 피켓을 들고 유가족을 맞이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하고도 복받치는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운 듯 잠시 숨을 고르기도 했다. 서 부장 판사는 지난 2012년 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 재판장 시절 화화그룹 김승연 회장을 범정구속한 것으로 잘 알려졌다.

대부분 선원들 형량 낮춰=이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형량을 대폭 낮춘 선고 결과도 1심과 사뭇 다르다. 이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전원 최소 징역 1년 6개월까지 감형됐다. 1등 항해사 김모(43)씨의 경우 징역 12년, 기관장 박모(55)씨에게 징역 10년, 2등 항해사 김모(48)씨에게 징역 7년, 3등 항해사 박모(27)씨 징역 5년을 비롯, 나머지 승무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징역 5년이 선고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형량을 ‘가감’하지 않고 법률적 판단이 옳은지 여부만 판단하는 ‘상고심’의 역할을 감안, 사실심(事實審)의 최종심으로 형량을 낮췄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징역에 따른 일률적인 형량 선택 대신, 승객 구조조치, 세월호 승선 경위, 건강상태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법 감정을 의식한 듯, 선원들에게 적용되는 ‘양형기준’과 ‘권고형량’을 벗어난, ‘무거운’ 형량을 선택한 배경을 판결문에 자세히 설명했다. 또 이탈리아 콜코르디아 좌초 사고와 관련, 승객보다 먼저 탈출한 선장에 대해 징역 16년 1월을 선고한 사례도 덧붙여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정을 찾은 유가족은 “다 풀 어줘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충돌 피하려다 망가진 새 오토바이



○~한 30대 남성이 다 른 차량과의 충돌 사고를 피하려다가 자신의 고가의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바람에 큰 피해를 봤다고 신고를 해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 ○~28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오토바이 주인 김모(32)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 광주시 동구 수기동 A오토바이 서비스 센터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직진하며 다가오는 박모(38)씨의 소년도 차량을 피하려다가 넘어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구입한 지 일주일도 안된 BMW 오토바이(3000만원 상당)가 박시 때문에 순식간에 불뚝없는 충고 오토바이로 전락해버렸다. 꼭 손해를 본 만큼 수리비를 받아내겠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사고 현장 등을 파악한 뒤 2명 모두 억울함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신축 원룸 매매

관심 **승전**

전대정문 2분! 후문 1/2 (신축 4층건물)
월세 인기좋은 / 임대 걱정없음

룸12개, 올 대리석시공, 신축
(1층점포 1개, 2~3층룸 10개, 4층주택 1개, 옥탑)
옥상에 피라사 설치

월수익 500만
매매가 6억 7천

추천 물건

- 전대정문 2분 룸20개 (1층상가2칸) 월수익 700만 매매가 7억8천
- 북구 용봉지구 상대 2분 코너 룸 21개 (상가2, 주택1) 엘리베이터 있음. 월세 800 매매가 11억
- 북구 두암동 동신대 원룸 19개 (상가1, 4층 주택) 월세 850 매매가 11억 5천
- 수원지구 상가매매 (4층중 3층) 월수익 150만 매매가 2억5천

062) 527-7600
010-7384-7800

상가건물매매

〈나주시 삼영동 2층건물〉

1층 6칸, 2층 2칸
토 205평, 건 47평
나주 영광초교 정문 앞
학원건물 적합

※ 학교앞 분식점 운영 적합

월수익 200만 매매가 3억

- 동구 충장로 상가 5층 학원건물 동부경찰서 앞, 매매가 15억
- 수원지구 모야빌 4층중 3층 85평 보 2천 월 200만 용 2억5천 매매가 3억5천
- 수원지구 롯데마트 옆 월150만 매매가 2억5천
- 수원지구 정영 3층 상가 30평 (보 1천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
- 수원지구 롯데마트 옆 월150만 매매가 2억5천
- 나주시 삼영동 상가건물 2층 영광초교 앞 1층 6칸, 2층 4칸 매매가 3억
- 수원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 23평 보 3백 월 32만 매매가 8000만
- 수원지구 수림오피스텔 13평 월세1천8백 매매가 20억
- 수원지구 수림오피스텔 13평 매매가 58만

010-6670-9800
010-7384-7800

(주)대신경매

〈추천물건〉

펜션/민박(2층상가)
담양 금성면

✓ 담양호 부근, 전망 좋음
✓ 현재 식당, 민박 운영중
✓ 펜션 단체 손님 운영중
✓ 건축 개발사업 기획가능
✓ 건설사 추천 물건
✓ 개발시 20억 수익발생 예상 (토 9600㎡ / 건물 628㎡)

적극추천 ★

감정가 28억
최저가 9억9천

010-7384-7800
010-6832-9700

(주)대신경매

이제 경매는 대중화 시대
입찰부터 매매 임대까지

수익성 상가 (근린 상가)

- 서구 금로동 7층상가 (296㎡) 감정가 6억5천/최저가2억9천
- 북구 분촌동 민생빌딩(3층중 1층/토596㎡, 건276.18㎡) 감정가 14억/최저가9억6천
- 북구 중흥동 씨나스전대(10층중1층/토20,032㎡, 건46,96㎡) 감정가12억3천/최저가9억3천

수익성상가(근린주택/공장)

- 광산구 소촌동(토400㎡, 건294㎡)감정가13억7천/최저가9억3천(세차장, 카센터)
- 서구 양동(180.5㎡, 건259.2㎡)감정가13억3천/최저가12억3천(2층건물/1층상,2층주택)
- 전주완산구호지동 (토502,453㎡, 건689,063㎡)감정가125억/최저가13억
- 광양시중동(토767㎡, 건3276.78㎡)감정가126억/최저가121억

공장/주요소/모텔/특수물건

- 광산구하남(공정토174.3㎡, 건2635.72㎡)감정가14억/최저가6억5천
- 북구 양산동(공정토3663㎡, 건4489.61㎡)감정가136억/최저가 25억
- 북구 월출동(공정토2매2채의, 건1458.9㎡)감정가110억/최저가10억
- 광산구 정목동(공정토2매2채의, 건114.46㎡)감정가136억/최저가29억
- 광산구 월계동(무인텔)토1522.5㎡, 건1999.65㎡)감정가134억/최저가134억

바닷가 펜션 경매추천 물건

- 경남 고성시회화면 (토13685㎡, 건867.16㎡) 감정가43억/최저가18억 (펜션,바다근처,건물깨끗 시설좋음)(특수물건)

010-6670-9800 / 062)382-5500

경매교육(매주 초 개강)

①경매 기본교육 +실전위주 교육
②VIP실전문(특수물건, 지분, 엔피엘(부실채권))

① 오전반 11시 ~ (기본+실전)
② 오후반 19시 ~ (기본+실전)
③ 엔피엘 교육, 특별반(상담가능)
(교육동시에 실전문자하여 학원비 면해서 공부가능)
★ 경매 기본부터 입찰매매까지
경매 최초! 원스톱진행(입찰~매매~건설~토목~개발·기획)

컨설팅 직원구함
-경매학원, 경매 컨설팅 같이 근무 할 직원 모집합니다. 책상 지원 등

062-382-5500

경매 물건 추천

- 1 담양군 금성면 (펜션,민박,식당) (토 9,200평/건882평) 감정가 27억 → 최저가 9억9천 (현재 펜션,민박,식당 단체손님 운영중)
- 2 전남영광군 법성면 (3층/근린주택) (토144평,건819평) 감정가 10억 → 최저가 4억8천 1층~2층상가 3층주택 (건물 바로앞 도로앞 바다)

062-527-7600
010-7384-7800